

# navien



Vol.

142

2017 WINTER



# NAVIEN

WINTER 2017 Vol.142

##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Chalet Gstaad
- 10 Hobby of Honors | 겨울여행
- 12 Space Environment | 베란다
- 16 Trend
- 20 Life & Style | 모던 하우스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Global NAVIEN
- 34 News
- 38 Readership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NAVIEN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발행인 홍준기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사보 담당 홍보팀 이수용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http://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http://www.kdnavien.co.kr)



## CHALET GSTAAD

DESIGNSTUDIO: Ardesia Design / LOCATION: Gstaad, Switzerland

그슈타드(Gstaad) 지역의 교외에 만들어진 이 아늑한 주말 주택, 살레 그슈타드는 스위스의 현대적이며 편안한 친환경 주택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추구한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선(Line)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밝은 빛과 뉴트럴한 컬러를 사용해 추구했던 선을 표현했다. 과도하고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자칫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스위스식 장식을 제거하고 깔끔한 목재 패널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장식이 사라진 자리에 채웠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공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목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이 공간을 채우도록 했다.





다양한 목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과 함께 공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육질의 흰색 터키 석회암과 회색으로 마감된 표면이다. 석고로 마감된 자연스러운 공간이 목재의 거친 느낌과 더불어 공간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만든다. 반면 주방에는 스테인리스와 고급 석재를 함께 사용했다. 주택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대비되는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느낌을 준다. 침실을 비롯한 전체 공간과도 다소 다른 느낌인데 도심과 분리되어 있지만, 연계성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연출이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만, 요리하는 일을 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오래된 목재와 이탈리아산 석재로 만들어진 벽난로가 있고 마주 보고 있는 안락한 소파가 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와 컬러를 사용했다. 벽면과 천장, 바닥에서 소파와 커튼같은 패브릭까지 모두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 편안한 환경을 강조했다. 벽에 걸린 그림조차 바랜듯한 색감을 골라 전체 공간과 통일감을 줬다. 집안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의 세심한 큐레이션으로 친환경적인 공간과 그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오래된 테이블, 작은 소품 하나까지 말이다.



CHALET GSTAAD by Ardesia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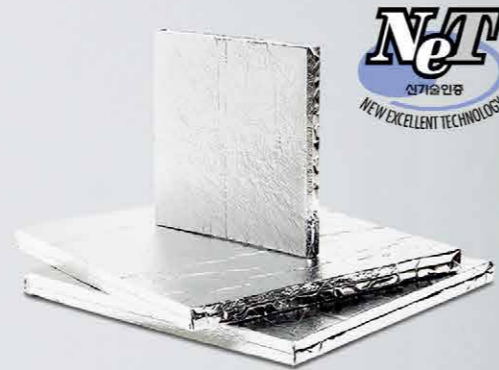
아르데시아 스튜디오는 런던에 기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다. 레지던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 영국 실내 디자인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rior Design)의 회원이며 영국, 런던 뿐 아닌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인도를 비롯한 여러 해외 프로젝트도 완성한 바 있다.





##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 댄싱 댄싱 콘덴싱

북극곰을 춤추게 하고 싶다면



# Join the 콘덴싱

콘덴싱보일러 1대 설치 시 1년에 CO<sub>2</sub> 약 576kg 감소 효과  
이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콘덴싱을 켜세요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록**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공공건축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the Tree Hotel*

The TREE L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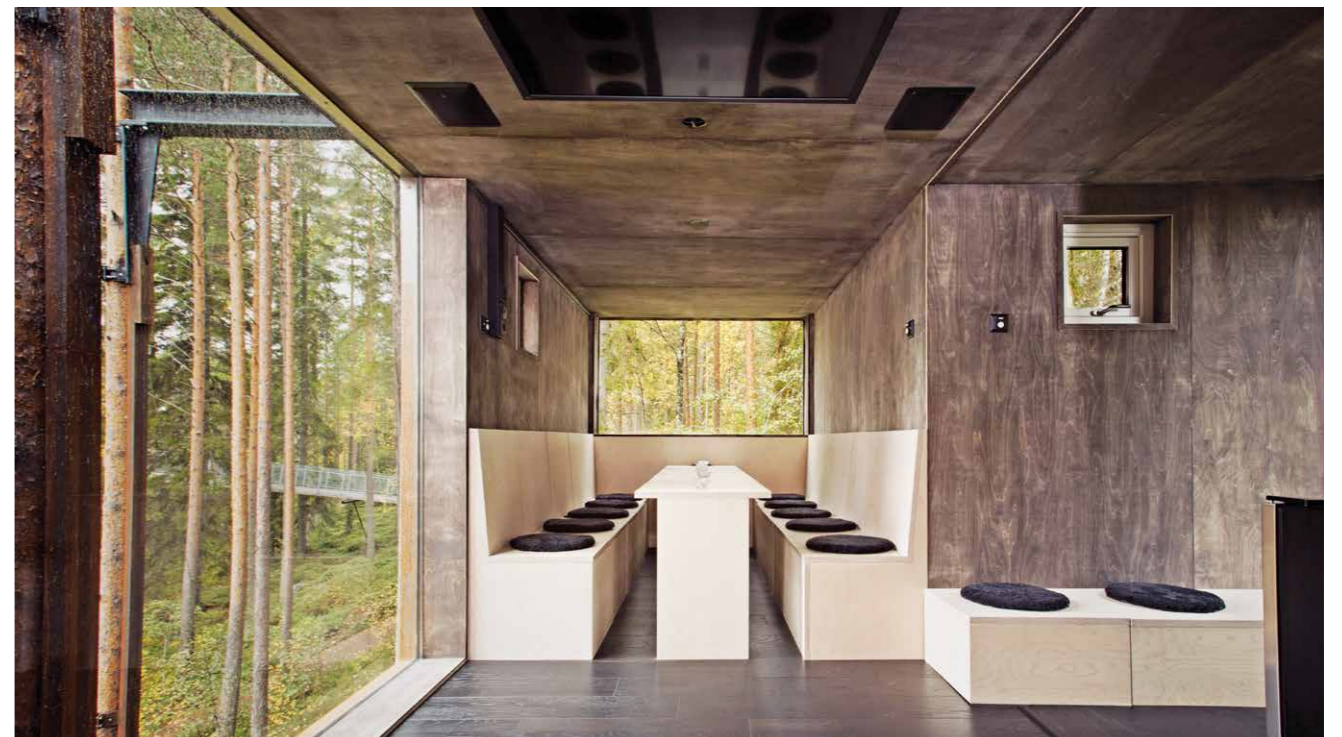
화창한 숲 속에서 거짓말같이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트리 호텔(Tree Hotel)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스웨덴 북부 지방의 하라즈(Harads) 숲 깊은 곳에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개성으로 가득한 6개의 객실은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냈다. 건물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어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이는 미러 큐브(Mirror Cube), 숲에 불시착한 우주선 처럼 보이는 UFO, 잠자리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은 드래곤플라이(Dragonfly), 새의 둥지 모양을 본뜬 더 버즈 네스트(the Bird's Nest), 접근 성이 좋고 편리한 더 블루 콘(the Blue Cone), 긴 다리로 주변 나무들과 연결된 더 캐빈(the Cabin)까지 다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갖고 지어졌다. 객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푸른 숲과 백야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다양한 야외 활동과 오로라를 즐길 수도 있다.



MIRROR Cube



DRAGONFLY



## 발코니, 베란다 혹은 테라스

### 사라진 마당의 귀환

196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에 아파트 문화가 시작됐다. 전통 부엌은 싱크대가 있는 시스템 키친으로 대체되었고 온돌은 연탄보일러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혁신적이었고, 전통 부엌과 온돌을 완전히 대체한 시스템 키친과 연탄보일러는 주부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궁이가 있는 전통 부엌과 온돌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마당은 사정이 달랐다. 마당에서 하던 많은 일들을 아파트에서 재현할 수 있는 공간, 함께 모여 김치를 담거나 잔치를 벌이는 공간, 잡다한 물건이나 장독을 보관하는 공간, 빨래를 널거나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시 처음 만들어진 아파트는 보통 복도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관문 앞의 복도를 마당처럼 사용했다. 사람들은 거실을 마루로, 현관 앞을 마당으로 생각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새로운 공간을 예전 공간의 연장으로 여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아파트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더이상 거실을 마루로, 현관 앞을 마당으로 여기지 않았다. 빨래를 널거나 장독과 연탄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도 현관 앞을 이용하지 않았다. 사실 새로운 세대가 살게 된 새로운 아파트에는 보관할 장독과 연탄도 없었다.



현관 앞 복도 대신에 아파트에서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찾아낸 혹은 만들어낸 공간은 베란다였다. 예전 안마당과 집 밖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현대의 아파트에서 재현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베란다였기 때문이다. 서양의 건축 양식인 베란다는 원래 실내와 실외의 중간 지점으로 조망, 휴식, 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적어도 한국에서의 그 시작은 마당이나 창고에 거의 가까웠다. 장독이나 화분,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들여놓는 곳이었고 빨래를 널어두는 곳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독을 떠오르게 하는 김치냉장고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도 베란다였다.

사실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그 공간은 엄밀히 말하자면 베란다, 발코니 또 테라스까지 무엇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원래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실내 공간이 아니라 실외 공간에 가깝다. 그 형태와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실내와 맞닿은, 실내에 가까운 실외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편한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시

간을 보내거나 뜨거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곳을 그 원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아파트의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햇빛을 피해 쉬는 것이 어색한 것은 그 어디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독특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내에 가까운 실외라기보다는 실외에 가까운 실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유와 형태가 어떻든, 보통 아파트에 있는 공간은 발코니라 부른다.

한동안 아파트 발코니에는 창틀이 없었다. 사전적인 의미의 발코니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러다 80년대 후반 발코니에 창틀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지금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5년 발코니를 거실과 침실로 확장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되었다. 거실과 외벽 사이, 침실과 외벽 사이에 있던 공간을 온전히 거실과 침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실과 침실은 넓어졌지만, 예전 마당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 주었던 대안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렸다.



2010년대에 들어서 발코니를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발코니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깝게 화단, 아이들의 놀이터, 휴식 공간으로 발코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벽면에 책장과 수납장을 설치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나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응접실이나 미니 카페로 꾸미기도 한다. 화분을 이용해 집안에 정원이나 텃밭을 만드는 이들도 있다.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발코니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발코니가 있으면 화재나 태풍 등의 재난 시에 더 안전하다는 이유도 이런 흐름에 한몫을 하고 있다.



## SPACE environment





호브딩 Hovding



호브딩(Hovding)은 신개념자전거 헬멧이다. 많은 자전거 헬멧이 있지만, 확실히 독특하고 심지어 안전하다. 사이클리스트, 에어백 전문가, 수학자와 사고 및 부상 전문가들이 모여 7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었다. 바로 에어백 자전거 헬멧이다. 에어백 자전거 헬멧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얼핏 상상이 안 된다. 풍선 같은 걸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훨씬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스카프처럼 목에 두르고 다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헬멧 형태로 부풀어 오른다. 일단 펼쳐진 헬멧은 에어 쿠션의 작용으로 일반 헬멧에 비해 3배나 뛰어난 탁월한 충격 흡수를 자랑한다고 한다. 안전성은 이미 EU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한 Hovding 2.0이라는 두 번째 제품을 출시했다. 티 나지 않는 헬멧, 안전한 헬멧을 찾는다면 멋진 선택이 될 것이다.

Airbag For Urban Cyclists(www.hovding.com)

€ 299



쿠카 Piena Inc.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갈아서 마시는 생과일 주스가 몸에 좋다는 것 그리고 맛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안다. 즉석에서 갈아 마시는 생과일 주스는 몸도 마음도 신선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믹서기를 들고 다니며 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실 수는 없는 일이고 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설탕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걱정된다. 쿠카(QOOCA)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텀블러만큼 작은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즉석에서 과일을 갈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름도 텀블러와 블렌더를 합쳐 텀블렌더라 부른다. 가볍게 들고 다니는 무선 믹서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겠다. 강력한 초소형 모터로 과일, 채소는 물론 견과류도 갈 수 있어 다이어트나 건강 도시락을 만들기에 좋다. 또 한 가지, 간편히 충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물론 비상시에는 외장 배터리로도 쓸 수 있다.

Tumbler + Blender = Tumbler(www.qooca.co.kr)

₩ 89,000





시그널 Innomdle Lab



이눔들연구소(Innomdle Lab)의 시그널(Sgnl)은 손가락을 통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시곗줄이다. 애플 워치, 삼성 기어 등의 스마트 시계는 물론 일반 시계와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시계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밴드처럼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도 있어 시계가 필요 없는 이들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 없이 스마트폰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용법은 아주 단순하다. 전화를 받으면 손가락을 귀에 갖다 대면 된다. 손가락을 통해 통화 음성이 귀로 전달되며 손목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통화음을 전달한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면 조금 더 깨끗한 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고 귀를 막지 않고 근처에 손가락을 대면 주변 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어폰이 필요 없으니 이어폰을 분실할 위험도 없고 주변 사람에게 통화내용이 들릴 염려도 없다.

Touch Your Sound(www.mysgnl.com)

\$ 149

깜빡 잊고 나왔다면~

NAVIEN Home IoT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원격 영상 보안은 물론 원격 냉난방 제어까지

조명제어

외출방범

난방제어

가스제어

냉방제어

침입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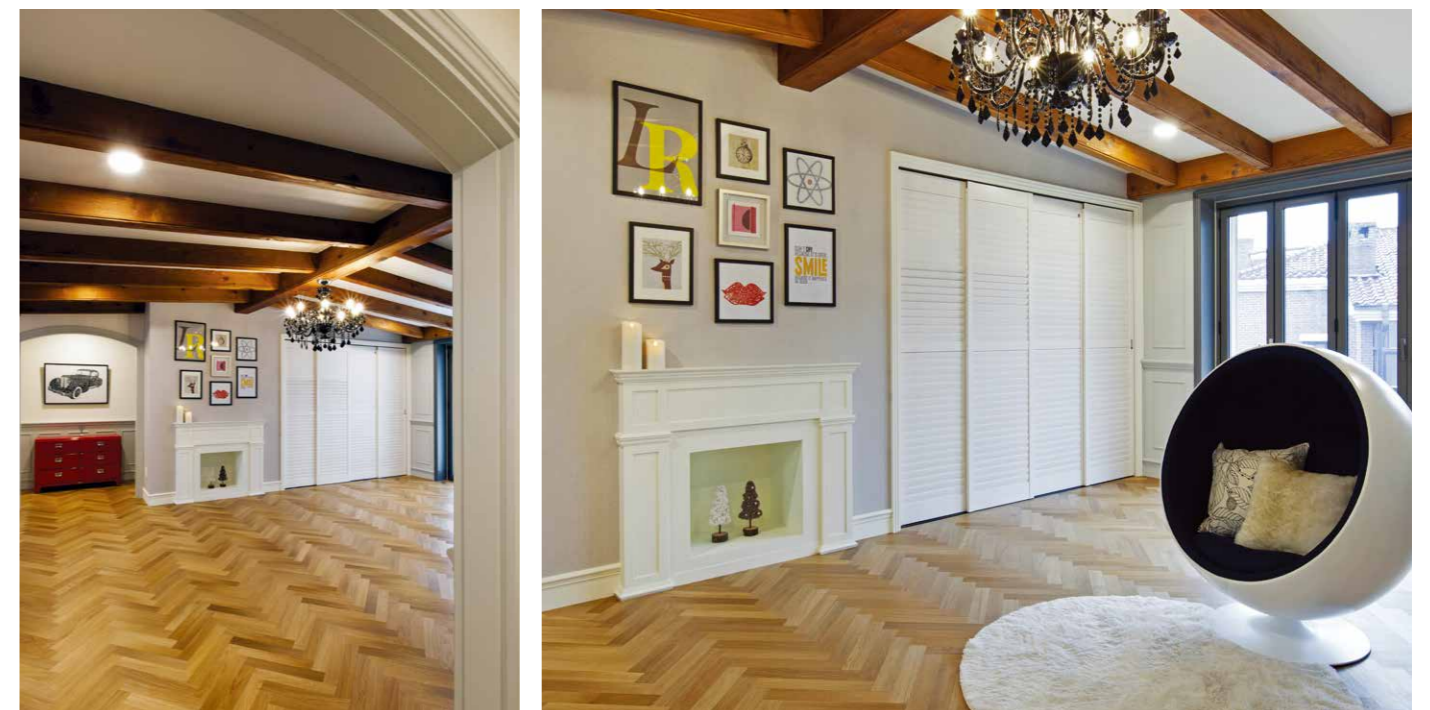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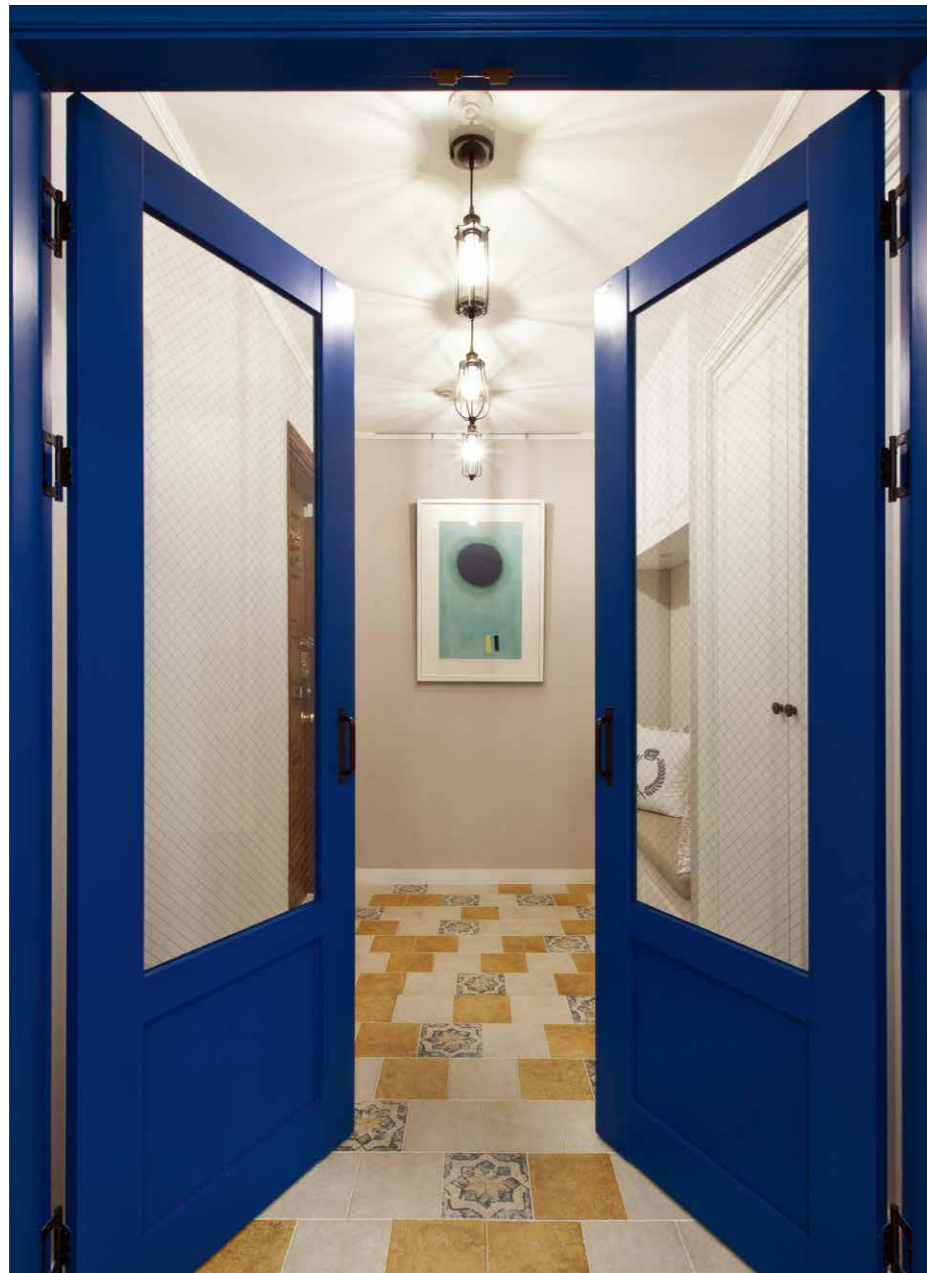
흡부기능

홈허브

## 채광과 실내 환경을 고려한 모던 하우스

**Tip** 현관 중문에 망입유리를 사용하여 현관 입구와  
집이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준다.

넓은 현관에는 손님들을 위한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화려한 타일과 조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벽은 웨인스코팅 스타일로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나무 천장을 그대로 남겨 옛날 주택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채광을 용이하게 하는 폴딩도어와 감각적인 조명의 사용, 그레이 컬러의 활용으로 클래식-모던 스타일을 완성했다.  
TIP. 그레이와 원목을 베이스로 한 인테리어에 컬러풀한 포인트를 두면 심플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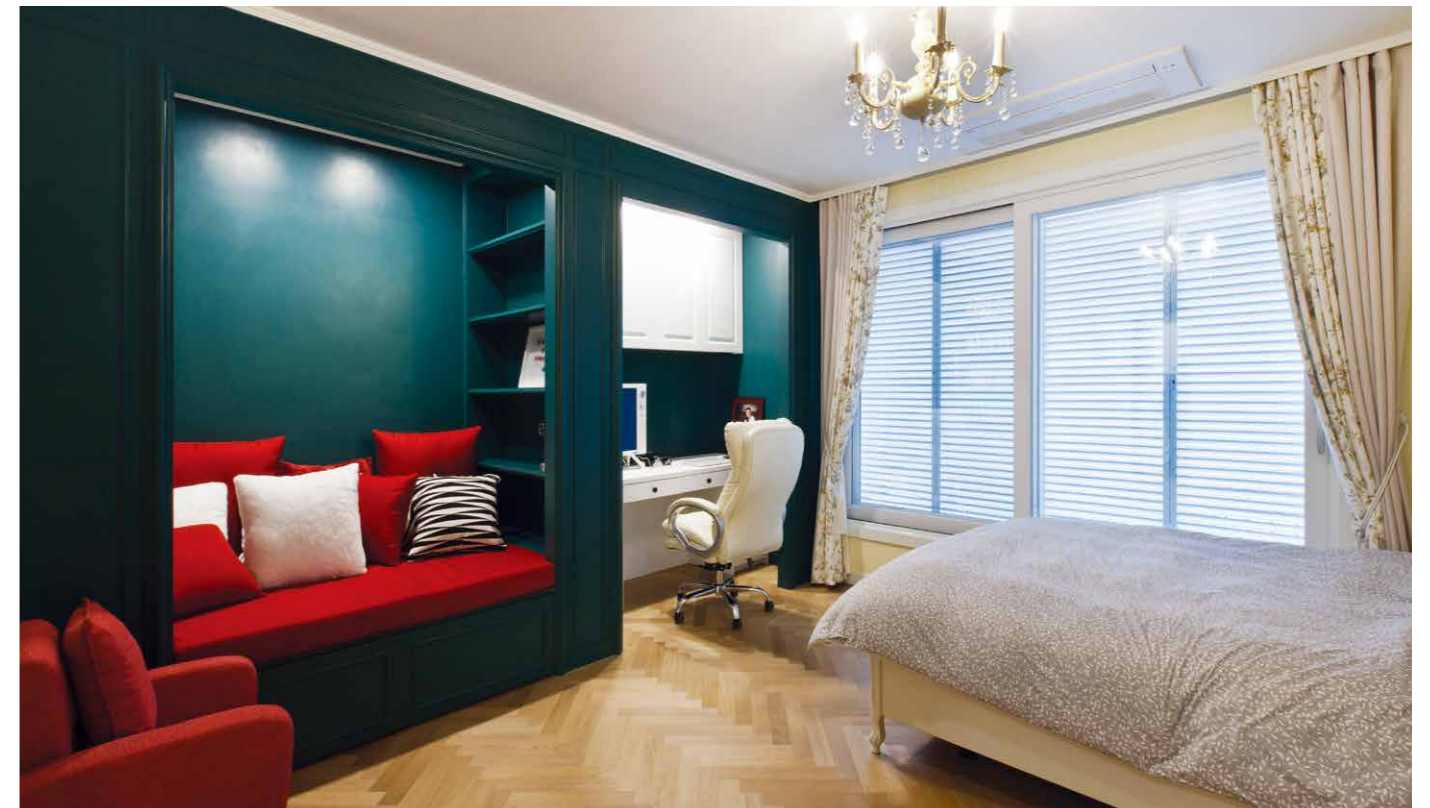


**아이방:** 두 개의 방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아이 방은 가운데 노란 슬라이딩 도어를 기준으로 공부방과 침실로 나뉜다. 침대는 평상형으로 아래 서랍을 수납공간으로 이용했으며, 공부방의 책상은 가로로 길게 설치해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TIP.** 물건을 걸 수 있는 타공판과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칠판을 설치해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침실:** 독서를 많이 하는 고객을 위해 설치한 북박스는 책 읽기에 완벽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때 컴퓨터 책상과 독서를 하는 공간을 확실히 분리시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부엌:** 편안한 동선을 위해 아일랜드 식탁을 두었으며, 외부 베란다를 절반가량 축소하고 실내 여유 공간을 확보해 세탁기를 설치했다.  
**드레스룸:** 클래식한 조명이 인상적인 드레스룸은 무엇보다 수납공간에 신경을 썼는데, 오픈장을 설치해 가방이 잘 보이도록 디스플레이해 놓았다.



##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IV



가스보일러는 1980년대까지 수입제품 위주로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다 1980년대 말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국내 업체 생산량이 10만대를 넘었고 1991년에는 48만여 대에 이르렀다. 가스보일러 확산의 가장 큰 공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과 도시가스 보급망의 확충에 있다. 무엇보다 연탄, 기름에 비해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쉬웠다. 연탄을 나르거나 기름을 채우는 일에 비해 자동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나 가스통을 통해 배달되는 가스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깔끔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신도시 열풍으로 아파트 공급이 확대된 것도 가스보일러 확산의 한가지 이유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가스보일러는 한국 시장의 주류가 됐다.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정부의 가스 사용 권장 정책도 한 이유라 할 수 있지만, 가스보일러가 이렇게도 많이 쓰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가스보일러는 작고 설치와 관리가 편리하다. 소음과 연기가 적고 온도 조절이 쉽다는 점도 역시 장점이다.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아파트에 잘 어울리는 장점들로 인해 가스보일러도 함께 성장했다.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난방이 필요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가진 것이 가스보일러였다. 또 연료인 가스는 기름과 연탄에 비해 공급과 사용이 간편하고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기름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가스보일러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가스보일러 업체의 기술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1988년 네덜란드 네피트 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하고 콘덴싱 기술을 한국 온돌문화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기술개발에 앞장섰다. 1998년에는 한국형 비례제어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해 각종 인증과 수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유해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콘덴싱보일러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일부 국가는 국민의 90%가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콘덴싱보일러의 장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좋아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Join the 나비엔



스마트 분리 난방으로 각자 원하는 골잡온도를 찾자

한 침대, 한 매트 위에서 자는 부부라도 각자 원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이제, 나비엔 온수매트의 섬세한 분리난방으로 따로 또 같이 쾌적한 온도를 즐기세요

-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 그대로  
경동나비엔의 온도제어 기술 NTC 테크놀로지를  
보일러를 통해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 안전 또 안전! Safety 1st 안전 설계 시스템  
최일드림/고온도 열펌프기능/차동안전시스템으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경동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행복나눔 콜센터 1588-1144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A/S 센터
- 경동나비엔의 원칙으로 만든 프리미엄 매트  
메트라스의 인락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쿠션 매트와  
관리성과 간결함이 극대화된 슬립 매트를 만나보세요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나비엔 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 꿈을 현실로 바꾸다, 콘덴싱보일러의 28년



1980년대 중, 후반의 인기 영화 시리즈인 '백 투 더 퓨처'의 2편에서 주인공 마티는 미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30년 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그가 도착한 2015년 10월 21일에는 당시의 시선에서는 기상천외한 것들로 가득하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폐기물들을 이용한 융합에너지, 자동으로 신발끈을 조여주는 운동화, 디지털 카메라, 홀로그램, 지문결재시스템, 드론, 지문인식도어, 자동조명등, 스마트TV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 미래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의 겨울, 꿈만 같던 영화 속 배경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 스마트TV나 지문인식 시스템은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았으며, 디지털카메라, 드론과 같은 기기들도 우리에

게 전혀 놀랍지 않은 익숙한 기기가 됐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조명 뿐 아니라 많은 사물을 편리하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역시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해 영화 속 유머 소재로 활용됐던 시카고 컵스의 우승까지 108년 만에 실현되었을 정도다. 현실이 된 영화 속 모습처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상상을 현실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그 변화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도 한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지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한 샤워로 잠을 깨우며, 저녁의 피로를 포근히 감싸주는 콘덴싱보일러다.



'백 투 더 퓨처2'가 개봉했던 1990년보다 2년 앞선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경동나비엔이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했다. 그로부터 2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조금씩 그 모습을 바꾸며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를 전하는 보일러로 발전해왔다.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했고, 언제나 같은 온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학습해 온도를 조절하는 환수 온도제어 기능과 ASA 난방을 적용해 더욱 똑똑해졌다. 샤워 문화로의 라이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수' 중심으로 변화해 더욱 정밀하고 풍부한 온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보일러는 우리의 관심에서 잊혀져 갔다. 예전에는 따뜻한 물로 씻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기만 하면 보일러가 스스로 온수 사용을 감지해 자연스레 따뜻한 물이 나온다. 강풍이 불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보일러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풍량의 변화를 읽는 APS로 이제는 태풍이 불어도 문제없이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경주에서처럼 지진이 나더라도, 진도 7 이상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진동성능을 갖추고 있어 문제 없이 가동된다. 소비자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28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발전하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콘덴싱보일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80%나 획기적으로 낮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전기까지 생산하며 가정 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작은 콘덴싱보일러 여러 대가 모여 커다란 중대형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솔루션인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용 시설에서도 콘덴싱보일러의 시대를 열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까. 지난해 가을, 환경부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점차 심화되는 미세먼지와 온실효과로 인해 대기질 오염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집 안 구석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던 콘덴싱보일러가 '진흙 속의 가자미'가 아닌 '화려한 도미'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백 투 더 퓨처'가 그렸던 30년 후의 미래가 현실로 완성된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도 콘덴싱보일러가 만들어진 후 28년의 시간 동안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왔다. 1992년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란 광고가 국민들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보일러의 확장을 이끌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난방비를 아끼시는 부모님 댁에 멀리서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려 "아버님 댁에 스마트한 원격제어 보일러를 놓아 드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콘덴싱보일러 역사 30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콘덴싱보일러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 Global NAVIEN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나비엔 브랜드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HYBRIGEN**

Высоко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й котел-генератор с двигателем Стирлина m-SiP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т KD Navien

**Котлы Газовые**

Будь на связи с теплом!

Удал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 помощью смартфона в Wi-Fi

**Котлы Газовые**

Удал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 помощью смартфона в Wi-Fi

**Котлы Газовые**

Удал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 помощью смартфона в Wi-Fi

**Cascade系统**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Navlink**

Optional new Wi-Fi remote control system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NAVIER GA/GST**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技术·纳碧安

## 국내 최소형 스테인리스 가스온수기 NGW550 출시



경동나비엔이 북미를 사로잡은 세계적인 온수기 기술력을 국내에도 선보인다. NGW550은 경동나비엔의 세계적인 온수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온수 품질을 선사하는 “명품 온수기”다. 일반적으로 온수기는 사용 중 유량의 변화가 생기면 온수 온도도 갑작스럽게 변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 온도제어 밸브가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NGW550은 온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판단해 뜨거운 경우 찬물을 섞는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추운 날씨는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원하는 온도를 정확히 구현하는 탁월한 불꽃 크기 제어 기술력도 적용됐다. NGW550은 100%부터 14%까지 필요한 열량에 따라 불꽃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온수부터 상쾌함을 더하는 쾌적한 미온수까지 0.5℃ 단위로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해 내구성도 높였다. 스테인리스는 기존에 열교환기의 소재로 많이 사용됐던 동보다 평균 3.8~4.5배 침식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기기인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기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소형 사이즈, 사무실 환경보다 낮은 소음, APS 적용 등으로 탁월한 편의성과 높은 안정성도 강점으로 갖췄다.

## 경동나비엔, 보일러 최초 ‘러시아 국민브랜드’ 선정



경동나비엔이 흑한의 땅 러시아에서 업계 최초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선정되며 최고의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러시아 국민브랜드 조직위원회와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에 수여되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신설된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에서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한 러시아 시장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보일러 기업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선정된 것이다. 전체 산업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LG에 이어 세 번째로 거둔 쾌거다. 러시아 시장에서 경동나비엔

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후발 주자라는 불리함을 딛고 기술력을 무기로 이뤄낸 성과다. 현지 언론에서도 “경동나비엔의 제품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전압과 혹독한 추위, 강한 바람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보일러다.” 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난방기기 전시회인 “Aqua-Therm” 전시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참가업체로 선정되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는 러시아법인은 올해도 CIS 지역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3년 연속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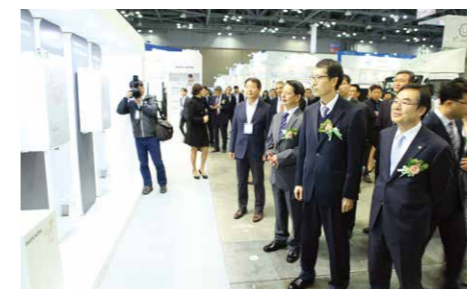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공신력 있는 고객만족도 지표로 평가되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경동나비엔이 ‘컨덴싱보일러’로 대표되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기술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인정받아 가정용보일러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동나비엔은 국내 매출 1위, 업계 수출 1위의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1등 브랜드로, 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행복온도나눔 전달식 열어



경동나비엔이 지난 12월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행복온도나눔 전달식을 갖고 서울지역 22개 복지관에 ‘나비엔 메이트’ 450대를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나비엔 메이트는 육아제품으로 인기를 끌 정도로 정확한 온도제어로 저온 화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친환경 소재인 실리콘을 매트와 호스 등에 채택하고, 100% 순면 커버를 적용하는 등 성장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11월 8일부터 4일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인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를 넘어 (Beyond Boiler)’를 콘셉트로 보일러 존, TAC 존, 온수매트 존 등 6개 테마별 부스를 구성하여, 보일러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술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온수매트를 시작으로 B2C 기업으로 확장해 나아가자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솔루션들을 함께 선보였다.

### 콘덴싱보일러 친환경성 알리는 TV CF ‘아이들’편 추가 On-Air



경동나비엔이 11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성을 알리는 새로운 TV CF “아이들”편을 추가로 온에어했다.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11월에 맞춰 공개된 이번 CF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79% 감소시키는 콘덴싱보일러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스크를 벗고 즐겁게 숨을 쉰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 재단법인 늘푸른,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열어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11월 9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작품전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조경 작품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올해 ‘기후변화와 조경의 역할’을 주제로 모두 27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동아대 이민근 학생 외 3인이 공동 출품한 ‘소막사마을, 하모니카에 바람 불어넣기’와 정민수 학생 외 4인이 출품한 ‘BACT TO THE FUTURE’이 각각 최고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행복나눔 김장 나누기 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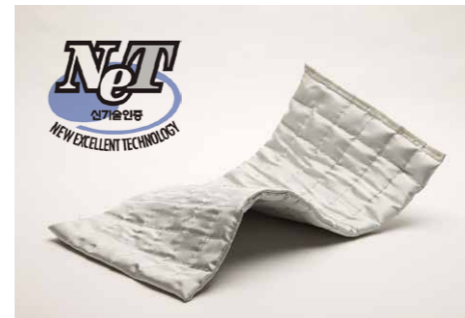
지난 11월 12일, 경동나비엔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행복나눔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은 경동나비엔 생산본부에서 마련한 직원 가족초청 행사 중의 한 순서로, 직원들간의 화합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경동나비엔 생산본부 직원 가족들이 함께 만든 김장김치 36박스는 평택시 서탄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 경동기자단,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진행



경동기자단 6기가 지난 12월 2일, 제빵 봉사활동으로 발대식으로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경동기자단 및 경동 4개사 직원 20여 명이 반죽부터 포장까지 제빵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호두파운드케이크와 소시지빵 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근 저소득층 가구들에 전달되었다. 경동기자단은 경동 4개사 구성원들 가운데 사업장 및 본부별로 선발된 기자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로 6기를 맞았다.

### 초고효율 마이크로포러스 보온재 FLEXTHERM, 신기술(NET) 인증 획득



지난 11월, 경동원 세라텍사업부가 초고효율 마이크로포러스 보온재 FLEXTHERM으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FLEXTHERM은 열전도율이 매우 우수한 고효율의 마이크로포러스 소재를 격자 누빔(Quilt) 방식의 담요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신개념 보온재료, 꿈의 단열재로 알려진 에어젤보다 2배 정도 성능이 우수하며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타 보온재 대비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두께가 얇아 협소한 부위에 시공이 용이하고 형상이 유연하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하며 탈부착이 필요한 부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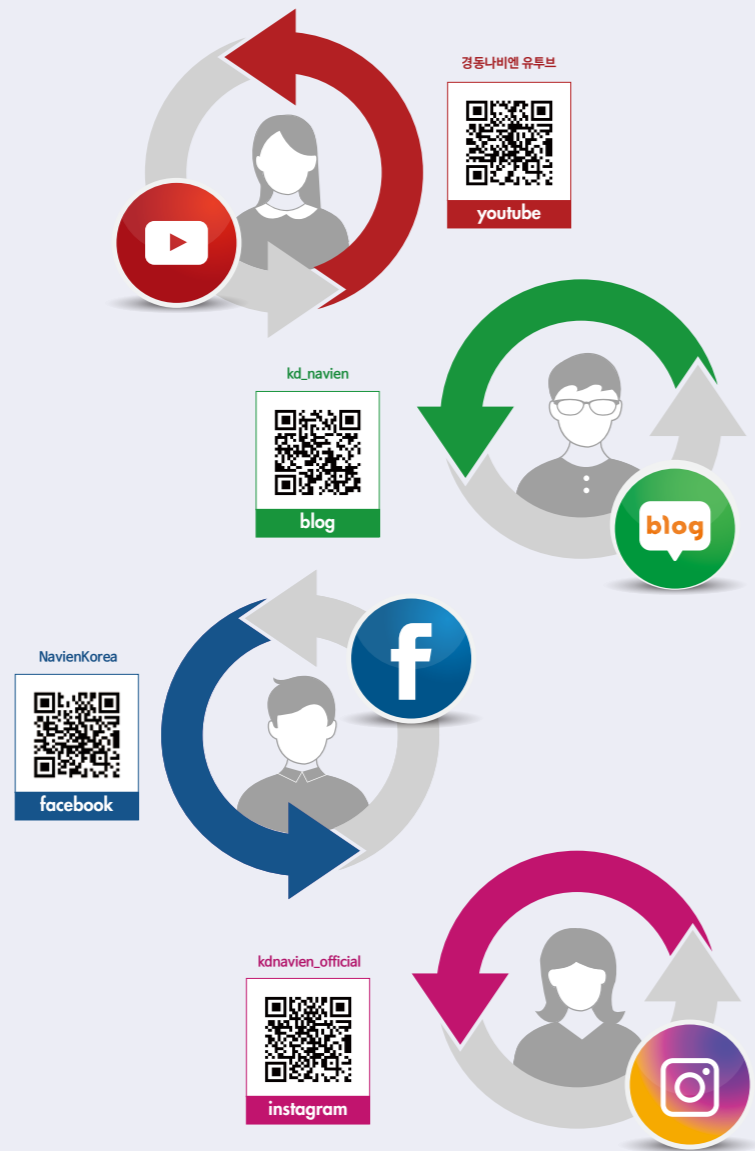
###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Home IoT의 미래 방향성 제시



경동원 네트웍사업부가 지난 10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참가했다.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oT 전시회이다.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뛰어난 IoT 기술을 적용한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홈 IoT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IoT 시장에서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경동원은 앞으로도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 나비엔과 #소통하세요!

다양한 이벤트,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나비엔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www.kdnavien.co.kr



국내 최소형 Slim 디자인

최고 수준의 온수 제어 성능  
(TDR 7:1/전 제품 믹싱밸브 적용)

실시간 스마트 공기감시 기술  
(APS 시스템)



## 가스온수기도 스테인리스가 올았다 경동나비엔이 올았다

국가대표 보일러답게 일반 온수기까지 스테인리스로  
**경동나비엔 스테인리스 가스 온수기**



[고객문의] 1588-1144 [설비업체 전용 문의] 1899-1914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 및 1.6% 차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대한민국 최초로 콘덴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들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지구를 지킨다

# 콘덴싱이 올랐다



1988년 대한민국 최초  
콘덴싱보일러 개발

1999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환경마크 획득

2000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2년 업계 최초  
콘덴싱가스보일러 미국 수출

2009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2015년 북미  
콘덴싱보일러 & 온수기 1위



###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 스마트톡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